

## 최근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와 남한 문화 확산 실태

임 순 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잡지,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해 보면 남한 실상 관련 내용들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비난조의 글들이다. 남한의 경제·사회 및 주민 생활은 비참한 상황이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흠모, 숭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반복적인 사상교양을 통해 남한은 미국이 강점한 식민지이며 ‘미국의 앞잡이’라고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왔다.

북한주민들의 남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에 있어 주요 계기를 이룬 것은 식량난 이후 빈도가 높아진 북한주민들의 중국 왕래이다. 식량구입을 위한 불법 도강이나 친척방문, 또는 외화벌이나 밀무역 등으로 중국을 왕래한 북한주민들은 남한 텔레비전 방송, 남한 가요 테이프와 영화 CD, 중국 내 친척·친지, 남한을 다녀온 조선족 등을 통해 남한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남한에 입국한 가족·친척 등과의 전화 통화로 남한의 경제발전 실상을 알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남한사회와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갔다는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 변화에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관광교류 등 6·15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남한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 평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남한의 대북 쌀·비료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의 지원 사실은 노동신문에 간략하게나마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 일본, 남한 등으로부터의 지원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으나 장마당 등지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적십자사’라고 쓰인 쌀·비료 마대들을 보고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좋은벗들’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보면 함흥시장에서 남한 쌀은 ‘호남별 쌀’로 통한다. 남한 쌀은 북한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쌀 판매 상인들은 ‘호남별 쌀’이라는 표지를 붙여두고 판매하는가 하면 “장마당에서 좋은 쌀은 ‘호남별 쌀’이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판다”고도 한다.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옷, 화장품, 가전제품 등 남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남한 상품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팔기는 힘들어 상표를 떼고 ‘아랫마을’, ‘아랫동네’라는 은어로 남한산임을 알린다. 그러나 중국사람으로부터 중고 옷을 받아 장사를 했던 한 새터민 여성에 따르면 남한 상표 부착 여부에 따라 옷 가격에 차이가 나므로 상표를 붙인 채 비싼 값에 팔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북한의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남한산 가전제품의 선호도가 높다고도 한다.

1980년대 말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한 대중가요와 디스코 음악이 유행한 이래 최근 들어서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남한 드라마와 영화 CD,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게 유통되

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국경연선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담은 불법 CD, 비디오 테이프 등이 주민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 드라마나 영화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좋아한다. 이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거나 서울 말씨를 따라하며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방하고 흉내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여성들 사이에서도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여성들은 머리모양과 옷차림에 관심을 갖으며 이러한 현상은 돈 있고 권력 있는 간부층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남한에 대해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편이며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남한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주민들이 잘 살기는 하지만 남한은 아직도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이며 미국과 일본 때문에 부강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잦은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다. 남북한간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제도화를 통한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는 남북한간 신뢰구축에 있어 주요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